

여수산단 '친환경 접착소재 공장' 착공

디렉스폴리머 1500억 규모
2023년 상반기 본격 생산
신규 일자리 창출 80명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투자 합작기업 '디렉스폴리머'의 APAO(무정형 폴리알파 올레핀) 공장이 입주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여수국가산단 DL케미칼 부지에 1500억 원을 투입해 핫멜트 접착소재인 APAO 공장을 짓기로 전남도·여수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일 착공식이 열렸다.

착공식은 권오봉 여수시장과 전장군 여수시의회의장, 이용규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박진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장, 김만중 디렉스폴리머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디렉스폴리머는 국내 최초 폴리부텐 분야 합성부터 제조 공정에 독자적 기술을 가진 DL케미칼(옛 대립산업)과 세계 3위의 핫멜트 접착제 제조기업인 미국 렉스텍(REXtac)사가 지난 9월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이다.

착공한 APAO 제조공장은 내년 말 준공 후 시운전을 거쳐 2023년 상반기 본격 생산에 돌입할 예정으로, 8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여수국가산단에서 외국인투자 합작기업 '디렉스폴리머'의 APAO 공장 착공식이 열렸다. <여수시 제공>

대된다.

APAO(무정형 폴리알파 올레핀)는 열로 녹여 불일 수 있는 접착제로, 위생용품과 자동차 내·외장재 및 각종 산업용품에 두루 활용된다. 현재 시장 규모가 매년 6% 이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래 유망 사업 분야다.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로, 위생용 접착제의 국산화 및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경

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산단 내 친환경 접착소재 공장 신설은 우리 시 신산업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디렉스폴리머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지리산국립공원-구례군-화엄사 '손 잡다'

군, 친환경 교통체계 도입...화엄사는 탄소중립실천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와 구례군,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가 화엄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과 구례군, 화엄사는 지난 1일 구례군청에서 기관 간 연계 및 협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상생발전 노력을 함께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최대 관광지였던 과거 화엄지구가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저조해 탐방객이 줄어드는 원인을 찾고 새로운 관광객 유입을 위한 기반마련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탄소 중립 실현 의지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협약을 통해서 지리산 전남사무소는 화엄 주차장 정비 등 체류형 플랫폼(그린뉴딜)을 구축하고, 구례군은 국도 18호선 중점부 변경 및 친환경 교통체계(순환 차량)를 도입한다.

화엄사는 국립공원 내 저탄소배출차량 운행 등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적인 협력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1일 구례군청에서 김순호(왼쪽) 구례군수, 화엄사 덕문 주지, 김은창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장이 협력·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사업의 첫 단추로 구례군은 화엄 4색이 어우러진 블루투어 프로젝트사업 중 국립공원구역의 사업인 '화엄사 진입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을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은창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장은 "국립공원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발전을 위해 앞으로 구례군과 함께 화엄 지구 관광 활성화, 국민체감형 탐방서비스 확대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순천 신대지구 외국인학교 이번엔 설립될까

광양경제청, 타당성 조사 착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순천 신대지구에 외국인 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0일 상황실에서 광양만권 외국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광양경제청과 순천시, 전남교육정책연구소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사의 추진계획 보고와 전남교육정책연구소 등 전문가

자문과 참석자 토론이 이어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중심 배후단지로서 조성한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 부지가 있다.

광양경제청은 2010년부터 외국인 학교 재단과 업무 협약을 하는 등 외국인 학교 유치를 추진했으나 투자가 무산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광양경제청은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가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 등 파급 효과가 크고 설립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면

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교육기관의 설립이 지연될 경우 국내 우수대학 캠퍼스나 연구개발센터, 공공기관 유치 등 부지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현 광양경제청 신성장산업유치부장은 "광양만권의 지역 여건 및 전략산업을 활용한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광양만권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순천시 '순천 미식대첩' 맛집 10곳 선정

'부처리호수'·'다락카레호수공원점' 대상 수상

순천시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순천 미식대첩'에서 맛집 10곳을 선정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순천미식대첩은 일반요리 부문 '고수맛집'과 면요리 부문 '누들맛집' 두 개 분야로 공개모집해 진행했다.

6일간 진행된 이번 '순천미식대첩'에서는 전문가 현장 평가와 관광객·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고수맛집에는 '부처리호수의 미나리차돌박이한상', 누들맛집에는 '다락카레호수공원점의 알새우카레우동'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순천시는 분야별 대상·최우수·우수·특별상을 선발해 총 10곳의 음식점을 맛집으로 선정, 순천시장상과 순천시의회의장상을 수여했다.

이 외에 일선 음식점 13곳(고수맛집 10곳, 누들맛집 3곳)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순천시지부 장상을 수여했다.

시는 미식대첩 선정업소를 대상으로 맛집 현판 게시, 상차림·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지난 1일 순천상공회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1년 제6회 순천미식대첩' 시상식에서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수상자 10여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순천시 제공>

보성군, 전남도 귀농어귀촌 평가 '최우수상'

전남도가 주관하는 귀농어귀촌 평가에서 보성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귀농어귀촌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의 귀농귀촌 사업 추진실적, 유치 실적, 교육·홍보 실적 등 8개 항목 12개 지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성군은 올해 농산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귀농산어촌 정책 실천에 창의성을 발휘했고, 농촌 전남에서 살아가기 추진과 귀농귀촌 유치 지원 집행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농촌 및 전남에서 살아가기 사업을 3개소에서 운영,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로 귀농귀촌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농촌에서 살아가기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귀농어귀촌 평가의 우수한 성과를 토대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에서 운영,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로 귀농귀촌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농촌에서 살아가기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귀농어귀촌 평가의 우수한 성과를 토대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로 귀농귀촌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농촌에서 살아가기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귀농어귀촌 평가의 우수한 성과를 토대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로 귀농귀촌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농촌에서 살아가기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GS칼텍스 "연말 릴레이 봉사로 온정 나뉘요"

17년째 김치·난방유·백미 전달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가 12월 여수공장 인근 노인과 소외이웃을 위한 '연말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자원봉사대는 지난 1일 묘도동 주민들과 함께 김장 김치를 담궈(사진) 마을 경로당과 소외이웃에게 전달한다. 오는 7일에는 삼일동 주민과 함께 행사를 벌여 총 1000포기를 채울 계획이다.

김치용기는 환경을 고려해 일회용 스티로폼 대신 각 가정에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김치통으로 준비했다.

또 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난방유 30드럼, 20kg백미 80포 등을 전달하고 집수리가 필요한 가정 2~3곳을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과 250



여 세대의 보일러 점검도 진행한다.

지난 17년 동안 이어온 'GS칼텍스 여수공장 연말 릴레이 봉사활동'에는 연인원 2000명이 참여했고,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